■ '돈 가뭄' 시달리는 광주·전남 중소제조업

"추가 담보 있습니까? 없으면 대출 곤란하죠"

은행들 돈줄죄기…제품생산·인력증원 '올스톱'

광주 하남산업단지내 A업체 K대표는 최근 모 금융기관을 들러 대출을 타진했다가, 임직원의 싸늘한 '대접'에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다.

K대표는 "전체 원자재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 원자재값이 품목별로 200~300% 올라 이들 원자재와 관련없는 다른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시설·운전자금으로 5억원이 필요해 은행문을 두들겼는데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짜맞고 말았다"고 말했다.

2억여원의 은행돈을 쓰고 있는 IT전문기업인 T사는 최근 모바일 게임 수출이 바람을 타면서 현재 20명의 직원을 40명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T사는 기존 거래은행에 2억~3억원의 융자를 요청했으나, 'IT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T사 대표는 "이미 소진된 담보물건만 요구하니,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고,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겠습니까"라며 "지난해까지 만해도 돈을 갖다 쓰라고 애걸복걸하던 은행들이 경기상황이 악화되니까 되레 빚장을 걸어 기업하는 사람들을 골탕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와 원자재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다 납품단가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이 '돈 가뭄'에 허덕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금융권이 기업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올해 1·4분기 중소업체의 신용위험지수가 2004년 4·4분기(32) 이후 최고치인 '31'을 기록하면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은행마다 핵심예금 이탈로 자금사정이 악화하면서 기업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12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금조달 애로실태'에서도 이같은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답변업체의 57.5%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사정 곤란을 호소한 기업중 29.5%는 직원봉급도 주지 못하고 있고, 28.7%는 세금과 공과금 등을 연체하는 등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자금 조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9.1%가 '조달이 곤란하다'고 답해 중기에 대해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반영했다.

은행자금 조달 곤란 사유로는 가장 많은 46.3%가 '담보요구 강화'였고 '대출한도 축소(39.0%)', '담보인정 비율 축소(33.7%)'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 하남산업단지내 A기계제조업체 대표는 "회수가능성을 두들겨보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기업들이 곤란할 때 은행이 문을 걸어 직원들 월급주기도 어렵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성장가능성을 담보해 은행권의 신용대출비중을 크게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관광 '자연속 휴식' 추구를

대규모 리조트·숙박시설 만들어야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광시장 발전방안'

광주·전남이 동북아 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숙박 및 교통시설 확충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광주를 '지역관광'의 거점 도시로 육성, 전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남관광 브랜드 이미지는 '자연속의 휴식'으로 설정, 이에 걸맞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0일 '광주·전남지역의 관광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관광시장의 문제점으로 ▲대규모 리조트 단지 부재 ▲수도권 등과의 접근성 열악 ▲숙박시설 부족 ▲취약한 지자체 재정 등을 꼽았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여행자들은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58.8%로 전국 평균(61.7%)를 크게 밑돌고 있다.

또 교통여건과 편의시설 등의 만족도도 각각 64.7%, 38.2%로 평균을 하회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광주·전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선 광주를 거점도시로 육성해 전남과 연계 관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광주를 특징적 볼거리를 갖춘 도시로 디자인하고 투어버스, 렌터카 등을 통해 '전남 관광'과의 연계채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광주·전남의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속의 휴식'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중 육성 대상은 전남의 서남해안과 다도해, 슬로시티(담양 창평, 장흥 유치, 신안 증도, 완도 청산) 등을 꼽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中企 명품 괜찮은데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2008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이 개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중소기업 명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창출' 中企 수출·자금지원 우대

구인정보 DB화도

앞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중소기업도 혁신형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지원이나 정책자금 대상 선정시 우대를 받으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시 보증료가 감면된다.

또 전국적으로 파악된 구직자들의 정보나 중소기업의 구인정보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며 구직자와 기업들에게 상세히 제공된다.

정부는 10일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비해 구성한 위기관리대책회의 첫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1사1인, 1사 10% 채용확대 캠페인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채용확대 캠페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중에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 혁신형 중소기업에 주는 우대조치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은 R&D나 수출지원 정책자금 대상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신보나 기보 보증을 받을 때 보증료 감면, 보증한도 확대,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구인 및 구직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고용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채용수요를 파악, DB화해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공키로 했다.

/연합뉴스

"車 걱정 말고 휴가 잘 다녀오세요"

기아 전국 830여 A/S네트워크 활용 '특별점검 서비스'

기아차가 고객들의 휴가길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에 나선다.

기아차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830여 곳의 A/S 네트워크를 활용, 고객차량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

서비스 기간 동안 기아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서비스협력사인 기아차 오토Q에 차량을 입고시키면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각종 지시등, 타이어 공기압, OVM공구(자가정비공구) 유무 등 여름철 장거리 운행차량의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아차의 '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는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일환으로 고속도로나 피서지에 국한된 이전까지의 휴가철 특별점검 서비스와 달리 전국 830여개 A/S 네트워크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고객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차는 여름휴가 특별점검 서비스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080-200-2000)을 24시간 운영하고 연인원 2만여명을 투입해 전국 어디서나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과 응급도우미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노조 두번째 부분파업

현재까지 690여대 생산 차질·95억 손실

금호타이어 노조가 10일 사흘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도 이날 2번째 부분파업을 벌였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총파업 사흘째를 맞은 이날 구조조정안 등을 놓고 오전 10시부터 9시간 가량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이날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직원 431명의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측은 국내 공장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측은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지난 2일 4시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이날 다시 8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기아차는 이날 파업으로 광주공장의 경우 생산차질 380여대, 52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2일 파업을 포함할 경우 생산손실은 690여대, 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銀 '광주VISA카드'

해외서도 인출 가능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카드 한 장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예금인출이 가능한 '광주VISA카드 해외 예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광주은행의 결제계좌를 사용하는 광주VISA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계 210여개국, 120여만대의 글로벌 ATM에서 연중무휴로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인출한도는 1일 미화 5천달러, 월간 미화 1만달러로, 이용한도는 신용카드결제계좌 잔액범위의 80% 이내다. 문의 1600-40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